

'아파트 하면 우방', 그 신화의 비결은?

- 기술 · 신용 · 완벽 · 조화 경영의 4원칙...독특한 기업문화 -

주택전문건설업체 (주)우방(회장 李淳牧). '아파트 하면 우방'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방은 주택부문에서 권위자로 우뚝 솟아 올라섰다. 이런 우방의 신화가 탄생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지.

우방엔 '기술제일', '신용제일', '완벽제일', '조화제일'이라는 경영의 4원칙이 있고,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끄는 우방만의 독특한 기업문화가 있다. 우방, 그 신화의 비결을 찾아가 보았다. <취재/박창배 기자>

창조적인 기업, 건전한 기업문화

창조적인 기업정신과 건전한 기업문화를 바탕으로 한 주택전문건설업체 (주)우방(회장 李淳牧).

우방은 99년 현재 총자산 9,441억원, 총자본금 494억원, 매출액 3,061억원의 중견 건설업체로 우뚝 솟아 있다. 우방의 신화는 1978년 4월, 정직과 신용을 기업이념으로 하는 주택건설전문업체인 우방주택을 설립함으로써 시작된다.

"우방은 단 한 채를 짓더라도 항상 최고의 아파트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지역을 기반으로 평촌, 분당, 일산 등 수

도권 지역까지 '아파트 하면 우방'이라는 신화를 남기면서 솟

우방의 신화가 탄생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고객제일과 인간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에 공헌한다"는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했고, 또 이를 철저히 지켜왔기 때문이란단.

우방은 '기술제일', '신용제일', '완벽제일', '조화제일'이라는 경영의 4원칙을 토대로 하고 있다.

한 화제와 기록을 낳았습니다. 특히 1994년 6월 분당 신도시에

서 대형 건설업체들과 치열한 경쟁속에서도 최고의 청약율과 함께 소비자 선호도 1위라는 타이틀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종환, 주택사업 이사)

우방의 신화가 탄생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고객제일과 인간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에 공헌한다"는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했고, 또 이를 철저히 지켜왔기 때문이다.

우방은 '기술제일', '신용제일', '완벽제일', '조화제일'이라는 경영의 4원칙을 토대로 하고 있다.

"우방은 끊임없이 연구하고 기술개발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

습니다. 또 건자재 하나, 작은 시설물 하나에도 정성과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계에서부터 시공, 마무리까지 모든 과정에서 완벽함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인간과 자연 그리고 공간과 환경이 어울리는 조화로운 공간을 창조하여 인간의 정서와 일치되도록 신주거문 화실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도수길, 홍보팀 과장)

주택부문 권위자로 우뚝

우방은 주택부문에 최고 의 고객신뢰도와 브랜드 가치로 창사 이래 99년 상반기까지 5만 6,602세대를 기록하고 있고, 건설시공능력평가에서 평가금액 4,463억원으로 2년 연속 대구 지역 1위를 차지하고 있다.

97년에는 한해동안 1만 4,390세대를 공급, 전국 주택공급실적에서 현대에 이어 2위를 기록했고, 99년 6월 대구지역 최초로 광케이블을 단지에 시공하는 인터넷 아파트 '우방 파크빌'을 분양해 공급 하루만에 100% 완전분양이라는 성과와 함께 17대 1이라는 기록적인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다.

우방은 1987년 6월 주택건설 지정업체로 지정받은 후 A/S(사후서비스)보다 한단계 더 나아



(주)우방 대구본사 전경

간 B/S운동(사전 입주자 점검)을 전개함으로써 아파트 품질관리에 혁신을 일으켜 입주후 만족도 조사에서 종합 1위를 차지하여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아파트로 자리잡고 있다.

또 아파트의 일률적이고 평면적인 단지 배치에서 탈피, 환경과 기능적 공간효율을 보다 중요시해 아파트 단지의 공원화에 주력하여 1987년 11월에는 대구의

청운맨션이 전국조경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1993년 10월 신도시 일산에 우방아파트를 건설함으로써 한국건축문화대상 아파트 부문상을 수상하였으며, 1996년 11월에는 건설업계 최초로 품질경영상을 수상하였고, 97년에는 소비자보호 우수기업상을 수상함으로써 우방의 고객중시 경영을 높이 평가 받았다.

**건설업계 최초로
중국 주택시장 진출**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우방의 노력은 뒤지지 않는다. 1994년 12월 국내 주택건설업계 최초로 중국 주택시장에 진출, 169세대의 아파트를 공급했고, 1995년 8월 건설업계 최초로 한국·영국·호주 등 3개국에서 동시에 ISO 9001 국제품질인증을 획득했으며, 품질경영 100선 기업에 선정되는 등 건설부문의 품질 우수성을 객관적인 평가를

를 통해 인정받기도 했다.

이밖에도 1994년 6월에는 (주)우방과학을 설립하여 「축산물의 오메가-3 지방산(DHA)」을 개발, 미국·일본·독일 등 7개국으로부터 특허를 획득하기도 했다. 특히 97년 5월에는 미국의 DOCOSA-FOOD사에 「축산물의 오메가-3 지방산(DHA)」 기술을 이전, 전세계적으로 우방과학의 기술력을 인정받기도 했다.

1991년에는 지방업체로서는 최초로 서울 지하철 공사를 수주함으로써 지하철 공사의 지방업

체 배제라는 공사 입찰 관행을 깬 바도 있다. 이어 대구지하철 시대를 여는 첫 공사인 1호선의 1-5공구를 수주, 순조롭게 공사를 완공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수시공업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창립시 우방은 단독주택 16가구만 지을 정도였지만, 현재 우방은 올해만 총 1만 2천세대(대구 위무사 부지 3,200여세대, 대전 내동 2천여세대 등)의 주택건설을 계획할 정도로 주택부문에서 끊임없는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우방은 향후 주택시장에서 리

대구 정화우방팰레스 조감도



품사업이 차지할 비중이 확대된다고 판단하고 이 분야의 사업확대를 계획하고 있고, 21세기 첨단주택건립 차원에서 사이버 아파트건립에도 기업의 역량을 쏟을 예정이다.

독특한 기업문화

우방은 기업의 고유영역인 이윤추구에만 급급하지 않는다. 지난 95년 5월 부장급 이하 전 사원이 주체가 되어 자발적으로 결성한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 모임은 우방의 기업문화의 근간이 되고 있다.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 모임은 사랑촌장을 전체 모임장으로 하고 회사사랑터·이웃사랑터·지역사랑터·가정사랑터·자연사랑터·도움터·알림터 등 7개 터와 이들이 차질없이 일 할 수 있도록 실무를 도와주는 사랑이음이 등 분야별 세분화를 통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펴하고 있습니다.”(최연주, 서울지사 홍보팀장)

이로써 우방의 전 사원들은 스스로 주체가 되어 일상업무와 정신행동을 함께 전개, 도덕성을 바탕으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태도와 기업의 공적기능을 다하고 궁극적으로는 이상적인 사회구현에 이바지한다는 목표를

가진다는 것이다.

이 모임의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천연기념물 228호인 흑두루미 도래지 보호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으며, 러시아 한인들에게 한글교재를 보내주기도 한다.

또 국내처음으로 발간한 점자판 사보를 시각장애인 및 유관단체에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며, 97년 11월에는 ‘3천원 들고 은행가기’라는 사회보 특집호를 펴내 우리 주변의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힘이 되기도 했다.

이밖에도 자연보호활동, 산사랑운동 등 환경운동에도 적극 앞장서는가 하면 연말이면 시설아동들과 함께 하는 ‘사랑박 심기’ 행사

등을 통해 소외된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지난 99년 5월에는 대구시 두류야구장을 동전으로 채우는 별난 이벤트를 기획, IMF 이후 급증한 결식학생들을 위해 시민들의 따뜻한 정성을 모금하기도 했다.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 모임의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지난 1996년 9월에는 대한민국 기업문화상 우수상을, 96년 12월에는 전국 1만8천여 기관단체가 참가한 전국 자원봉사대축제에서 최우수상을, 97년 11월에는 대구·경북지역을 대상으로 한 ‘사랑스런 대경인상 기업문화부문’을 수상하기도 했다. 

